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2 권 1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6:00 - 6:20). 금 (오전 9:00 - 9:20)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7 시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미사성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창세 22,1-2.9 7.10-13.15-18 화답송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제 2 독서 로마 8,31 L-34 복음환호송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르코 9,2-10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 월 4 일	이 마틸다	이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3 월 11 일	이 클라라	김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3 월 18 일	이 마틸다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3 월 25 일	이 클라라	김헬레나	성인복사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감사헌금	교무금
2 월 26 일	\$	\$	\$

*매월 첫째, 셋째 주일 미사에는 2 차 봉헌이 있습니다.

세금보고 관련: 2011 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Church Donation Receipt 이 필요한 분은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전례: 사순기간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에, ‘십자가의 길’ 전례가 있습니다. 2 월 24 일(금)-4 월 6 일(금)

말씀의 이삭

꽃향기와 생선비린내

김종철 아우구스티노 | 시인

‘인간의 본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 삶의 모습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을 각각 주장했던 맹자와 순자, <걸리버 여행기>에서 야생 생태의 인간을 하등하게 여겼던 조너선 스위프트와 사람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술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한 미켈란젤로 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많은 이들이 격한 논쟁의 장으로 이끌곤 했습니다.

오늘은 먼나라 경전에 인간 본성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아낙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근처에 있는 꽃집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꽃집 주인은 딱한 상황에 처한 그녀를 정원 가까이 있는 방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도록 했습니다. 생선 장수는 매우 감사해 하며 짐을 풀어놓았습니다. 피곤했던 탓에, 그녀는 곧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비릿한 냄새를 맡고 살던 그녀에게 방 안 가득 채운 향기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한 꽃향기는 생선장수 여인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궁리 끝에, 그녀는 빈 생선바구니에다가 물을 뿌려서 자기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공 동 체 소 식

기도회 모임: 3 월 7 일 (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길이며,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3 월 11 일 '영성체 후 묵상' 참조)

임원회의: 3 월 13 일 (화) 저녁 7 시

한인공동체 임원회의가 3 월 13 일 화요일 저녁 7 시에 있습니다. 임원분들의 참석부탁드립니다.

3 월 소공동체 모임: 3 월 18 일 (주일) 미사 후

평일저녁미사 및 고백성사 시간 변경

*3 월 12 일 부터, 월요일-목요일 저녁미사시간이 6 시 30 분에서 6 시로 변경됩니다.

*3 월 12 일부터, 변경되는 고백성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화, 목: 오후 5:00-5:30. 금: 오전 9:00-9:30.

성당청소 일정: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각 소공동체 구역별로 성당청소 (매 주 토요일 오후 3 시)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역: 매월 첫째 토요일. 2 구역: 매월 둘째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 토요일. 4 구역: 매월 넷째 토요일

원전에는 생선장수 여인을 ‘본능에 얽매여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몸에 깊이 배어있는 습관의 힘과 영향력은 무척 지독한 것이므로,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꽃향기와 같은 정신적 향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생선장수 여인은,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한 것이 주어져도 자신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남루한’ 정서에 친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순리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선비린내가 천한 것이고 꽃향기가 고귀하다는 것은 사회가 스스로 정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선장수 여인은 자신의 본성에 귀를 기울여,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주보에서-